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

군산시, 미래시장 선도 기술창업 생태계 본격화... 지원사업 신청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군산 강소특구)가 2023년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강소특구는 핵심기술기반인 군산대를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통해 산업 구조 다변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신산업분야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해 2023년도 전북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3차년도에 접어들어 육성사업은 △사업화 우수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 △기술이전사업화(R&BD) △강소

형 기술창업육성 △강소특구 특화성장 등 4대 중점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비는 2023년도 총 38억5천만원으로, 군산 강소특구의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 특화분야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미래시장을 선도할 기술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대상 세부지원 사업으로는 △연구소기업 R&BD Bring-up 지원(1.8억원),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4.4억원), △Colabo Business Plus-up 성장지원(3억원), △Tech-up 기술지원

(4억원), △Value-up 기술지원(1.1억원), △창업기업의 아이템사업화지원(1.37억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중심의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소기업 R&BD Bring-up 지원(1.8억원)사업은 연구소기업의 매출창출을 위한 사업화 R&D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지원,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4.4억원)사업은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특허 창출을 지원, △Colabo Business Plus-up 성장지원(3억원)사업은 특화분야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매출 연계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노인회관이 44년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개관식을 개최했다.

44년만에 새로이 문 열었다

군산시 노인회관 개관식 개최... 지역 숙원 해결

군산시 노인회관이 44년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개관식을 개최했다.

군산시는 (사)대한노인회 군산지회(지회장 이태범, 이하 군산노인회)가 12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내빈과 지역 어르신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노인회는 지난 1979년 창립·결성한 후 1979년에 건립된 노인회관을 44년간 활용해 왔다. 노인회관은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회의 역할 증대로 노인회관 신축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두돼왔다

총 사업비 37억 1,400만원이 투입된 노인회관은 구청사가 있던 오통로 27 일원에 연면적 1,250.2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노인회 사무실과 상담실 등 업무공간이, 2층은 방음 시설을 갖춘 음악실을 비롯해 교양·취미 및 소모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건강관리실 등 여가와 건강관리를 위한 공간이다. 3층은 150명을 수

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배치됐으며 건물 옥상에는 총 발전 설비용량 34.4kw의 대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시의회 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 비롯한 도·시·의원과 김두봉 전북 노인회연합회장과 전북 시·군 지회장, 자매결연 시·군 지회장 등 많은 내빈과 지회 임원 및 군산시 경로당 회장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기념행사는 군산문화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이태범 군산노인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군산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전 북연합회장의 축사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격려사 및 특별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군산 출신의 탤런트 겸 가수인 김성현의 1시간에 걸친 특별공연은 코로너9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는 시간이 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맛'도 '가성비'도 최고... 익산 청년몰 상상노리터 인기

점포별 매출액 월 평균 100만원씩 상승... 가성비 좋은 음식과 서비스로 고객 입맛 사로잡아

익산 청년몰 '상상노리터'가 최고의 맛과 가성비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기세를 이어 시는 올해 다양한 마케팅과 청년 상인들의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해 청년몰을 더욱 활성화하고 탄탄한 고객 창출 기반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년상인육성재단 조사 결과 지난달 청년몰 점포별 매출액이 전월 2월과 비교해 월 평균 100만원 가량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오픈기념으로 2주간 진행된 다이어وم 포인트 이벤트 행사에도 500여명이 참여해 다이어وم 카드로만 약 1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매출 뿐 아니라 배달앱이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등에서 높은 평점을 기록하는 가게가 늘면서 고객 만족도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년 상인들이 질 좋은 음식과 적절한 가격으로 가성비를 높이고 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이

다.

이용객들은 청년몰에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맛과 함께 가성비도 좋아 자주 찾게 된다는 평을 밝히기도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농촌 일손 해결한다... 외국인 근로자 농가 투입

익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투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12일 시는 올 상반기에 MOU를 체결한 베트남 에이습군에서 39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79명 등 모두 1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농가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 에이습군에서 39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들은 9명의 지정 농가에 배치되어 총 90일간의 농업 근로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15명이 입국해 근로하고 있으며 나머지 근로자도 이달 중 모두 입국하여 근로

에 투입된다.

앞서 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베트남 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각각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베트남 에이습군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현지와 실시간으로 연결해 한국어 기초회화와 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현지 경찰관을 통해 범죄예방, 무단이탈 방지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주민(Zoon-in)특, 위기가구 발굴 효과 '특'

익산시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소통 채널 '익산 주민(Zoon-in)특'을 기반으로 상담 지원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각종 복지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익산 주민(Zoon-in)특'에 3천200명 이상 가입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종합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익산 주민(Zoon-in)특'은 기존 대면·유선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1:1 채팅으로 소통 창구의 문턱을 낮춰 주위에 있는 위기

가구를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 채널이다.

현재까지 50여건의 제보와 서비스 문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용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의 도움 요청에 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어 (익산형)긴급지원사업, 다이어움 나눔 공간 신청 등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가구 발굴-상담-지원까지 이어지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홍보 나서

익산시가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DDX(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되는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익산 방문의 해와 대표 관광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왕궁보석테마관광지와 아가페 정원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숨은 관광지를 홍보해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빈려동물 동반 여행길, 대물림 맛집 등을 알리고 방문의 해 관광 홍보영상 상영을 비롯한 관광지도 홍보 리플릿 배포 등과 같은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알찬 관광 정보도 제공, 부스를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익산시간의 숨은 매력을 홍보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씽(Think)어게인, 익산' 시민역사동아리 운영

익산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씽(Think)어게인 익산' 시민역사동아리 운영이 본격화된다.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역사동아리 '씽(Think)어게인 익산'에 참여한 참가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씽(Think)어게인 익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다시(Again) 생각(Think)해보자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씽(Think)어게인, 익산'은 백제 부흥을 꿈꿨던 백제 무왕의 일대기를 주제로 강의, 체험 및 활동 토론회 등 총 10회에 걸쳐 동아리 활동을 하며 팀별 활동비로 50만원씩 지원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일반인 누구나 4인 이상 5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다. 단 개인 신청 시 팀은 임의로 배정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